

‘염전노예’ 불똥 튄 신안 천일염 업주들 ‘이중고’

사건 이후 이미지 추락 일할 사람 끊긴데다

소금 주문량도 하루 1~2개로 급감...큰 타격

신안군 신의도에서 장애인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노예’ 사건이 터진 이후 오명을 쓴 지역 천일염 업주들이 인력난과 매출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출 감

소는 들췌치고 당장 올해 염전에서 일할 사람도, 겨울철 보수작업에 필요한 일용직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장을 닫고는 철인 2월에는 택배 수요가 많지만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신의면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

는 “택배 수요가 많아 일용직 포함 6명이 필요한데 현재 4명뿐”이라며 “예전에는 다른 염전 근로자나 주민들이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도 했는데 경찰조사를 받거나 주변의 눈치 때문에 일하겠다는 사람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근로자 1~2명을 고용해 가족과 염전을 운영하는 B씨는 “지금부터 사람을 구해 정기로 소금밭을 갈고 창고 수리, 물탱크 보수도 해야 하는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형 거래처가 많지 않고 개인 판매를 주로 하는 B씨의 염전은 매출 타격도 상당하다.

B씨는 “예년 이맘때면 장을 닫기 위해 매일 20kg짜리 소금 70~80개가 팔렸는데 최근에는 주문 물량이 하루 한두 개에 불과하다”며 “정직하게 일하며 신뢰를 쌓기 위해 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안 천일염생산자 연합회는 최근 신의면 신의중학교 체육관에서 자정결의 대회를 가졌다.

박영호 회장은 “이번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생산자로서 더 없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폭언과 폭행을 금지하고, 근로자를 가족으로 구성해 인권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 사법기관과 노동청의 협조를 받아 수시 또는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 앞으로 인권유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tee@



신안군은 최근 산불 진화헬기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나섰다.

신안군 헬기 이용 산불 예방활동 편다

신안군이 민간 헬기를 임대해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펼친다.

신안군은 유로콥터에서 제작한 헬기를 임대해 산불조심기간(봄 2월 1~5월 15일·가을 10월 1~12월 15일) 가운데 160일간 본격적인 예방과 진화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군은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60% 이상인 날과 주말·휴일 등 취약시기

에 집중적인 헬기 계도비행을 할 계획이다.

신안군에 배치된 임차 헬기(항속거리 500km·최대 비행속도 시속 200km)는 산불발생시 담수용량 1000ℓ의 소방용 밤비 버켓(Bambi-Bucket)으로 신속하게 초동 진화활동을 펼칠 수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tee@

진도 고정·봉상지구

28억 투입 받기만 정비

진도군이 올해 임하면 고정지구와 봉상지구 등 2개소에 28억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받기만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임하면 고정지구는 수혜면적 48.2ha에 농로포장 3.08km와 응배수로 1.8km를 설치한다. 또 봉상지구는 수혜면적 50.7ha에 농로포장 1.35km와 응·배수로 2.95km 등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받기만 정비 사업은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투입해 협소한 농로 길을 확·포장함으로써 농작물의 수송과 기계화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게 된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20일 받기만 정비사업 안전 기원제를 열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응수원 개발과 농로 포장 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따라 주민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형영기자 hypark@



치료받은 독수리 방사

해남군과 야생동물 협회 관계자들이 20일 화산면 연곡리 양수장 인근에서 독수리(천연기념물 243호)와 매(천연기념물 323호) 등 야생동물 방사행사를 갖고 있다. 이날 방사된 새들은 탈진상태에서 발견돼 치료를 받아왔다.

해남군과 야생동물 협회 관계자들이 20일 화산면 연곡리 양수장 인근에서 독수리(천연기념물 243호)와 매(천연기념물 323호) 등 야생동물 방사행사를 갖고 있다. 이날 방사된 새들은 탈진상태에서 발견돼 치료를 받아왔다.

<해남군 제공>

전북

“동학 120주년 기념

나무 기부 받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황토현 전적지 일원에서 3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 기념식수 120그루 기부캠페인을 추진한다.

기념재단은 주요기관과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나무기부 신청을 받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무기부 희망자는 직접 나무를 기부할 수도 있고, 나무값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낼 수도 있다. 기부받은 나무에는 기부자의 이름과 소망을 담은 문구를 부착한다.

문의(063-536-1894)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활짝 핀 복숭아 꽃

영동지역에 연일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시설하우스에 복숭아 꽃이 만개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무장면에

문화체육센터 준공

고창군 무장면에 문화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고창군은 지난 19일 무장면 무장리에서 문화체육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총사업비 36억원(국비 25억·군비 11억원)이 투입된 문화체육센터는 부지면적 7146㎡에 건축 연면적 1004㎡의 지상 2층 규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세워졌다.

문화체육센터는 1층에 강당, 다목적 홀, 기획전시실, 관리실, 화장실 등이 있으며, 2층은 사무실 4개와 전산실, 휴게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전북 방문 관광객 한명당 고작 7만원 지출

작년 실태 보고서...대부분 기념품·특산물 구입

쇼핑서비스 개선 등 관광소비 촉진 전략 필요

지난해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 한 명이 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2013년 전라북도 관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7만764원으로 조사됐

다. 이는 2011년의 6만1691원보다 15%가량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는 식비와 음료비가 43.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교통비 18.6%, 숙박비 16.5%, 문화 서비스비 8.5%, 쇼핑비 7.6%의 순이었다. 식비와 음료비는 2011년 33.0%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향토 제과점으로 군산에 매장 한 곳만을 둔 이성당의 빵이 2위를 기록한 것이 이채롭다.

전북의 대표적인 여행 코스는 군산~새만금~부안으로 29.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만 15세 이상의 내국인 관광객 9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를 진행한 정명희 연구위원은 “여행비용이 증가하는 데 맞춰 여행 물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쇼핑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관광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단신

남원농기센터,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500만미 분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는 다음달 21일까지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500만미) 분양신청을 받는다. 치어는 겨울철에 농업기술센터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연구동과 민간종묘 농가에서 생산됐다. 60~150일 가량 자라 크기 3~8cm, 무게 0.7~1.3g짜리로 양식장 입식시 생존

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가격은 마리당 15원~30원이며, 분양 시기는 4월~10월(6개월간)이다. 센터 관계자는 “토종 미꾸리의 치어보급과 함께 미꾸리 양식 기술을 확대·보급해 남원 주어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 시기동주민센터 ‘주민과 소통의 날’ 운영

정읍시 시기동주민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매주 주민들과 소통하는 날을 운영한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매주 수요일 지역 기관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동행정의 발전적인 방안 등을 듣는 ‘통하는 날’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22개 단체 800

여명을 대상으로 대화에 나서 총 37건의 주민의견을 들어 처리했다.

센터는 지난 19일 시기동 삼하교린(여성)경로당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정읍소방서와 연계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시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전주시는 제95주년 3·1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3·1절 하루전부터 팔달로 등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3·1절 당일에는 진북동 전자상가 거리 등을 태극기 달기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 홍보방송과 자생단체 회의홍보 등을 통해 태극기 게양 방법을 안내하고, 태극기 달기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태극기 달 때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하면 된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군산해경, 비응항 해상서 대테러항만 보호 훈련

군산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2시부터 군산시 비응항 서쪽 해상에서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대테러항만 방호훈련을 한다.

훈련에는 합정 8척과 고속보트 2척, 해경 특공대원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가한다. 훈련은 총기류를 지닌 국제 테러조직원들이 군산항으로 입

항하는 국제 여객선을 나포, 승객을 인질로 잡고 폭과 협박하는 시나리오를 가상해 실시한다. 해경과 유관기관은 여객선 추적, 테러범 제압, 인질구출 등의 단계별 대응으로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테러범을 진압하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